

열반 이르는 부처님 육성 '생생'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대림 스님(사진)은 올해 초 <디가 니까야>를 발간한 각목 스님과 함께 초기불전의 경장과 출장까지 한글로 완역하겠다는 발원을 한 스님이다.

2년전 <정정도론(위수다따가, 초기 경전 주석서)>를 완역출간한 스님이 최근 부처님 말씀을 담은 빠알리어 초기 경전 중 숫사별로 말씀을 모은 <앙굿따라 니까야>(초기불전연구원 권, 각 3만 원) 1~2권을 한글로 완역 출간했다.

2년만에 발간하다보니 시간이 없어 하루 8~15시간씩 번역을 했다고 한다.

대림 스님 '앙굿따라 니까야' 한글 완역본 1·2권 출간

그래선지 스님은 눈이 너무 안좋다. 그래도 스님은 초기경전 번역에 하루도 쉬지 않는다. 꼭 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3~4년간에 각목 스님과 빠알리 삼장 가운데 기본이 되는 4부 니까야(디가 니까야, 맛지 마 니까야, 상웃따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를 모두 번역 한 뒤 본격적인 학술 활동과 수행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스님이 왜 초기경전의 번역에 주력하게 됐을까.

대림 스님은 1983년 세등선원 수인(修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불경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탐진체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경전의 내용이 웬지 멀게만 느껴졌다.

이후 선지식과의 만남을 발원하며 하루 1000배 정진을 1년동안 했다. 하지만 선지식 인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행을 위해 티베트 다람살라로 떠났다. 하지만 그곳은 오히려 한국보다 부처님법이 더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돌아오려는 참나 한 스님으로부터 그곳까지 갔으니 인도에 들러 성지 순례를 하고, 인도남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각목 스님을 만나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36시간에 걸쳐 기차를 타고 뽀나대학에 도착하니 여러 한국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초기경전을 기록한 빠알리어 공부를 권했다.

석사학위에 이어 박사학위까지 총 13년이나 공부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부처님의 직설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1700년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내용을 다시 한글로 해석해서 보니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기경을 번역하는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님이 이번에 번역한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는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의 숫자(法數)별로 모은 단순한 전기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분류가 많다. 탐진체에 관한 내용 등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주제의 범주가 분명히 말씀을 숫자별로 모아 결집한 것이다. 즉 주제의 숫자가 1인 것부터 시작해서 주제의 숫자가 11인 것까지 차례대로 모았다. 앙굿따라는 주제의 구성요소를 뜻하는 '앙가'와 뒤로 갈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우따라'의 합성어.

<앙굿따라 니까야> 1권에는 하나, 둘, 셋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모음이 수록되어 있는 경들을 모은 각각 575개, 283개, 163개의 경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 2권에는 '넷의 모음'이 수록되



어 있으며 모두 271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권에 6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주해를 달았다. 주해도 대부분 <앙굿따라 니까야 주석서>를 참조하여 상좌부의 전통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25쪽에 가까운 독자 서문을 넣었고 각각 30쪽에 달하는 각권의 해제를 달았고 술어를 한글화했다.

<앙굿따라 니까야>는 전 6권으로 출간 예정인데 3권과 4권은 올해 연말에, 5권과 6권은 내년 상반기에 출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새로운 책

■ 우리결에 오신 미륵(원통 법사 지음, 해조음)= 대승불교 경전에 서술된 여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미륵 부처님을 지칭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 금강경에 담긴 메시지도 말법시대를 위한 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천대와 멸시를 할 수 없으며, 공덕이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수명에 대한 상을 가진 사람은 경을 이해못하며 법신과 세계와 중생은 본래 하나라고 합한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제1장 석가 세존의 예언, 제2장 열반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제3장 대승불교 철학, 제4장 불교의 정도 세계, 제5장 불교의 말세관, 제6장 미륵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인 원통 법사는 1975년 불탄허 스님에게 '개벽과 화엄사상' 강의 듣고 평생 대승불교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 무구정광대다라니 범서(실답자) 사경(덕산 편저, 도서출판 보경)=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복덕과 선근은 오역죄가 소멸되어 지옥문이 닫히게 되고 간담하고 질투한 죄는 면하게 되는 많은 상서로운 일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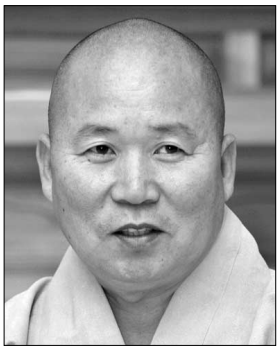
<무구정광대다라니 범서 사경>은 무구정광대다라니의 위신력, 사경의 공덕, 사경의식 절차, 사경하는 방법, 사경수행에 대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 사경, 무구정광대다라니 기도방법 등으로 수록돼 있다. 부록으로는 복장용 무구정광대다라니, 영가원도대다라니, 대야래불정능엄주를 함께 실었다.

■ 이룸대사전(원공 지음, 신화문화사)= '좋은 이름을 쉽게 혼자서 짓고 싶습니까?' 부산 효타암 주지 원공 스님이 작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책을 발간했다.



스님의 작명은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하고,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한 글자가 두 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오명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그것.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을들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범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8 사찰의 아름다움을 시어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펴낸 혜자 스님

산사가 불교와 산사를 이해하고 불교문화의 진수를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2년전부터 출가 후 방문했던 사찰의 자료를 모으고, 그 중에서 의미있었던 사찰 108곳을 뽑아 사찰 소개 및 감정을 이입한 서사시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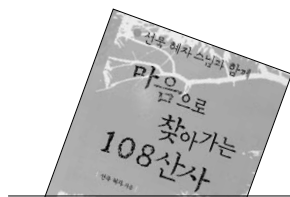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는 단순한 사찰 안내나 관광명소의 소개가 아닌 사찰현장의 모습을 시적 언어로 담고, 역사적인 소개와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장구한 세월 동안 있었던 불·보살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일화 등을 소개한다. 또 조계종 통합 종단이후 도량의 정비와 포교를 위해 지력한 역대 주지 스님, 사찰 소개 및 안내, 사찰의 특성을 담은 사진 등도 함께 담았다.

스님은 "108사찰 서사시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포교방법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바로 1080명으로 이루어진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구성하는 것. 현재 400여명이 신청한 상태라고.

월 1회 산사를 방문하여 총 5년이상 소요되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기도, 108참회,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 동참불자에 나관, 해당사찰 이름이 새겨진 연주알 보시 등을 할 예정이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발대식은 9월 7일 오후 5시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다.

김원우 기자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혜자 지음 | 화남 | 2만원

화엄경이 알려준 지혜로운 삶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 도업 지음 | 부다가야 | 1만원

'욕망은 그것을 채움으로써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써 채워진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욕망의 눈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끝없는 신기루를 쫓는다. 욕망은 대중속의 고독과 풍요 속의 빈곤을 오늘날 우리들의 표상으로 세워놓았다.

평생 도제양성의 외길을 걸어온 도

업 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화엄법계사 주지)이 그동안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엮은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를 펴냈다.

스님은 이책에서 진정한 삶을 바꾸는 방법을 화엄경 사상으로 일깨운다. 스님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게해 욕망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있다.

무비 스님이 뽑은 법구 100가지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무비 지음 | 불광 | 9000원

팔만사천 법문에 달하는 불법의 요체를 바쁜 현대인이 온전히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슴을 울리는 간단한 명구 한 구절을 통해서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도, 지혜의 눈을 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불교의 명구 100선을 가려뽑아,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명쾌한 해설을 덧붙였다.

무비 스님은 "일상 생활 틈틈이 불교 명구를 거울 삼아 흔탁한 마음을 비취 본다면,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 자유, 대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상의 수련법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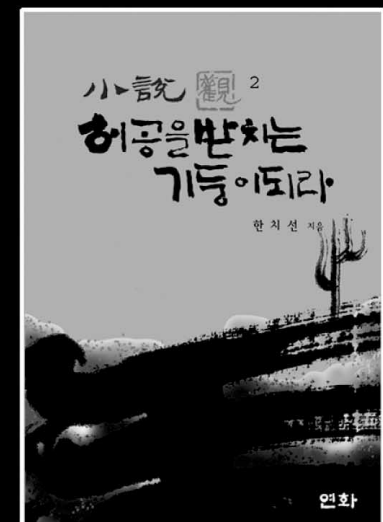
스물세가지 기이한 이야기. 그 스물세명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져 있다. 인드라의 그물처럼..... 그들은 내 옆에, 그리고 당신 옆에서 나름대로 생명의 공간을 밝히고 있다... 허공을 받치는 기둥이 되어.....

판타지라기엔 너무나 사실적이고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스토리... 이것이 리얼리즘 판타지의 진수! / 한겨레 21

심오하고 방대한 불법의 수행체계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표현해낸 작가의 역량이 돋보적이다. 본격구도소설의 깃발을 세웠다. / 불교신문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야기들.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흡인력. 오랫동안 가슴 속에 상처가 남을 수도... / 안양신문

인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전생과 내생을 넘나드는 상상불가의 논픽션 기록들... 달콤한 재미로 포장한 진리의 쓴 약을 맛보는 듯 하다. / 인천일보 안병선 기자



한치선 지음 / 각 권 11,000원

